

새 일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들

성경말씀: 눅1:5-25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4000년을 끝내시고 신약을 시작하려 하신다(갈4:4).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인물들이 나타난다.

서정주 시인의 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눅1-3장은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진귀한 기록,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 천사들,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눅1:3). 초임의 주인공, 새 일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인공을 바라며 새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

어떤 사람들이 새 일을 할 수 있을까? <새 일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들>

시대적 상황

예수님의 초림 당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였다.

BC 606년 바빌론 포로생활 70년, 메대 페르시아 고레스 BC 536년 예루살렘 귀환, 성전, 성벽 건축
하만이 일어나 온 세상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함,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BC331), BC 323 요절
남(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과 북(시리아 셀레오쿠스)으로 나뉘, 중간에 낀 이스라엘은 늘 전쟁
북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헬레니즘, BC 168-164년 이스라엘의 성전 훼파
제사장들의 타락, 마카비 등장, 그러나 나라의 운세가 기울어 결국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함. 그리고 BC 40년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됨

포로 귀환 이후 여전히 배도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가 등장하지 않음

요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제사장 타락, 끊임없는 전쟁, 메시아 대신 에돔 사람이 왕이 됨
백성들의 상태는 절망 그 자체였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데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AD 300년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탄압,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이상, 암울한 시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신다. 말씀의 부흥
우리나라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절망적이다. 진리를 찾는 자가 드물다(렘5:1-2).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영적, 육적 모든 문제, 성경 말씀의 부흥

우리의 사람을 살펴보자: 이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5)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 합치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기억하신다.’

언제 맹세하셨는가? 시89:33-37: 다윗의 씨가 메시아로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린다.

이들의 특징(6): 주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흠 없이 걸으며 의로웠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경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딤후2:14)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써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누가는 5-6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보여 준다.

헤롯: 그 당시 그는 왕이었으나 가장 사악한 자 중 하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난했으나 의로운 자
하나는 재능이 많아 많은 일을 수행한 괴물 통치자요, 다른 하나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는
의로운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 사랑한 자, 자기 아들과 아내와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
다른 하나는 겸손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제사장, 하나는 에서의 후예, 하나는 야곱의
후예, 하나는 전갈 같은 아들들을 이스라엘에게 남겨 준 자,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침례자 요한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남긴 자, 하나는 메시아를 직접 죽이려 한자,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한
자(67-79).

그런데 역사가 누가는 헤롯에 대해서는 ‘유대 왕 헤롯’이라고 짧게 쓰고는 사가야 이야기만 함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7)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었다. 더욱이 연로하여 소망이 없었다. 65세가 되면 농인, 80세가 되면 매우 연로함. 이들의 소망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다.

사가랴의 제사장 직무 수행(8-10)

구약 시대 성전을 짓기 바로 전에 다윗은 제사장을 24개 계열(조)로 나누어서 한 조가 일주일 씩 일 년에 두 차례 성전에서 봉사하게 함(대상24:8).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전 제사장 아비아 계열(8째), 그 당시 8000명 제사장, 각 계열 330명, 사가랴에게 제비가 떨어져 그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됨,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광, 마지막 영광, 그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의롭게 걸을 때 이런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 사역을 외치고 다니지 말라. 조용히 의롭게 가정생활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기회가 온다. 성전 밖에는 경건한 무리들이 기도하며 사가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주의 천사(11-17)

분향을 마쳤을 때 주의 천사가 향단의 오른쪽에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로 인해 두려워 함 천사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Fear not, 총 63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아브라함 창15:1, 이스라엘 사43:1, 5, 요셉 마1:20, 여인들 마28:5)

그 이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메시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13-17).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성도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올바른 성도에게 주님의 기도 응답: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엡2:8-10).

사가랴의 의심(18-20)

사가랴의 응답: “표적을 주십시오.”,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13). 기도가 응답되자 오히려 의심하며 표적을 구한다. 제사장, 성경 박사, 의인, 기도, 아이러니,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반응(롬8:26)

처음에는 사가랴가 놀랐으나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놀람, 이게 무슨 말인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음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표적을 준다(19-20).

믿음이 있고 의로워도 실수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아브라함과 하갈, 반석을 내리치는 모세, 밧세바 와 간음한 다윗,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다 의인이지만 실수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천사의 말 응답(21-25)

백성의 반응(21),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22)

사가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할 수 있었지만 불신으로 인해 잠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잠시 책망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백성의 표적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됨(24-25)

그 뒤 예언대로 침례자 요한의 출생함(57-66)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그가 말을 하게 됨(64).

그의 선포의 핵심(67-79): 죄들의 사면을 통한 구원(77), 이유: 메시아 탄생(78-79)

하나님의 두려움이 퍼짐(65). 새 일에는 이런 두려움이 따라야 한다.

결론

우리의 삶이 암울할 때,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암울할 때, 기도하자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서 의롭게 되어 묵묵히 의로운 일을 하는 자, 실수해도 쓰신다.